마법의 거울을 깨버려라!

(마26:57-68)

57.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59.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60.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2.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 하는 말을 들었도다
66.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67.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법의 거울을 깨버려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백설공주의 계모인 왕비, 스스로 자멸해 갑니다.

이 왕비가 스스로 자멸해 가는 이유, 이 비극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왕비는 때때로 자기가 갖고 있는 마법의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계속해서 거울이 왕비가 제일 예쁘다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왕비가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법으로 만든 약을 마심으로써 할머니로 변합니다.
흉악한 할머니로 변하게 만들어서 가장해 가지고 백설공주를 죽이려 했는데, 이 비극이 백설공주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잘못된 거라는 얘깁니다.

우선, 그저 좀 가볍게 생각해 보면 질문을 바꿨어야 돼요.
거울이 왕비에게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을 그 이후부터 질문을 바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거울아, 거울아 내 나이 또래에서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이렇게 바꿨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겁도 없이 새파란 것들이 마구 밀고 들어오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는 질문을 언제까지 할 참이었습니까?
내 나이 또래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묻거나 아니면 나이에 비해서 누가 제일 동안이냐,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죠.
백설공주는 딸뻘 아닙니까?
이 자식뻘로 어린 백설공주가 나이만으로도 얼마든지 모든 미의 관점으로 다 압도할 수 있는데다, 명색이 백설공주입니다, 피부가 흰 눈과 같이 깨끗하고 맑은데, 그렇게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진 이 젊은 아이를 무슨 수로 어머니뻘 되는 나이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왕비가 설사 백백설공주였다 할지라도 그 나이면 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비극은 어디에 있느냐?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고 말하는 그 순간 거울을 깨버렸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거울에게 와서 묻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어야 열등감과 질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백설공주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왕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거울을 깨야 질투와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는데, 사람은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춰지듯이 비춰져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꼴레쥬 드 프랑스, 즉 프랑스 칼리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던 한 프랑스 여성인 '사빈 멜슈오르보네'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거울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참 인상적인 말을 남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코기또 에르고 쑴(cogito ergo sum)'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인문학사 속에 아주 뚜렷하게 기념비적으로 남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틴어로 'cogito ergo sum'
그런데 이 멜슈오르보네가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비쳐진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가 되기 이전에 이미 인간은 - 그러니까 homo sapiens가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 호모 스펙쿨룸(homo speculum)이었다는 거예요.
speculum이 뭐냐 하면 라틴어로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거울.
영어에서 speculate라고 할 때 사색이라고 그 뜻을 새기지 않습니까?
speculation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에요.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는 것, 자기를 객관화해서 쳐다보는 것, 이게 바로 사색이라는 겁니다.
사색의 근본적인 핵심내용이 바로 자기를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주관 속에 빠져있지 않고 자기를 객관화 시켜서 보는 건데, 거울을 통해 비친 나를 보는 것, 이게 사색이고, 사색하는 인간이 homo sapiens고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전에 '나는 비춰진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앞서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통찰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인을 만나서 연애를 하면 왜 살맛이 납니까?
애인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애인이라는 마음의 거울에 내가 어떻게 비치는가 보았더니 이 세상 모든 여자를 올킬 해버립니다.
그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나라는 여자가 최고로 비춰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비춰진 나를 보면서 살맛이 나는 겁니다.
아내가 찌개 하나를 맛있게 끓였어요, 찌개를 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당신이 끓인 찌개가 최고야!' 남편의 마음에 비춰진 자기를 보면서 주부로써 살맛이 나는 겁니다.

왜 연예인들이 연말에 상을 받으면서 웁니까?
시청자들에게 비춰진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살맛을 느끼며 거기서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비춰지기 때문에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을 추구해 갈 때 반드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백설공주의 계모인 왕비의 길을 걸어서 질투와 열등감에 몸부림치든가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처럼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기도취로 자멸하든가 질투와 열등감으로 자멸하든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비춰지면서 존재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을 추구해갈 때 반드시 왕비처럼 망하든지 나르시스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님께서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체포되어서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증거 하는 자들이 마구 소란을 피우며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나쁜 놈이다,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다'고 거짓증거들이 속출하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물어요, '어찌 가만히 있느냐? 이 난리통이 보이지 않느냐?'
자, 이 침묵의 의미가 뭘까요?

재판 장소에 서있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무얼 해야 됩니까?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배심원이나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비춰지도록 그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변론이나 변호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 모습이 배심원들과 재판관에게 가능한 한 범죄자의 모습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내야 할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변론이 필요하고 변호가 필요한 겁니다.
나를 아름답게 그려내고 아름답게 묘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악무도한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는 비난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해버리십니다.
왕비의 마법의 거울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왕비가 마법의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거울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본다고 할 때,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있는 나는 타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시작해서 화장이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에 기준이 있어요, '아 이젠 됐다!' 이 됐다는 기준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볼 때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보겠구나!'라는 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 것은 타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비의 거울을 깨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비친 나, 어떤 모습일까? 상관없이 깨버렸다는 겁니다.
유대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깨버렸다는 겁니다.
측근인 12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거울 깨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도 깨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울을 다 깨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어떻게 비치느냐, 상관없다는 겁니다, 마치 여자들이 실연을 당해 세상 살기가 싫어져서 화장이고 뭐고 다 안 하고, 머리도 새둥지처럼 해갖고 슈퍼마켓에 들락거리는 것처럼, '이제 내가 예쁘게 해봐야 누구에게 보이겠나?' 살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쳐지는 거울이 없어지면 살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왕비의 마법의 거울을 깨버렸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거울아, 거울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냐?'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쳐져야만 자기의 존재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그 마음을 비춰져야 비로소 가질 수 있어요.
침묵하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그 많은 아우성치는 비난 속에서도 당신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해낼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비쳐지느냐? 권능의 하나님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게 되는 것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시 말해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거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울을 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아버지, 그 하나님의 거울 하나만을 보면서 사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갖고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은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쳐진 내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거울에 비쳐진 내 모습, 자식이라는 거울에 비쳐진 내 모습, 부모라는 거울, 이웃이라는 거울에 비쳐진 내 모습, 그냥 다른 사람에게 비쳐진 내 모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장님에게 비쳐진 내 모습, 부장님은 사장님에게 비쳐진 내 모습, 그래서 사장님에게 비쳐진 거울 속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로 비쳐지고 있을 때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부장님 거울 속에 내가 칭찬 받을만할 때 내가 회사 다니는 맛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다 깨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왕비의 불행과 나르시스의 불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울을 다 깨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거울 하나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거울, 하나님 거울,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나요? 하나만 묻고 사는 거예요.
여기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난리를 칩니다.
침 뱉어 마땅한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비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비쳐지고 있는 당신의 모습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는 그 거울을 다 깨버렸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사람 같으냐?' '내가 어떻게 평가되느냐?' 묻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완전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십니다.
오직 하나님 거울, 하나님께서 '넌 내 우편에 앉아있어야 마땅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거울에 비친 모습 하나만 붙잡고 이 세상 모든 거울을 다 깨버리고 공회의 재판정에 앉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아내가 남편과 대화를 합니다.
이때 남편에게 비쳐지는 내 모습을 궁금해 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내 모습이 아름답게 비쳐지기를 원하지 마세요.
남편 앞에서 대화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비쳐질까를 보세요.
자식에게 비쳐지는 내 모습, 친구에게 비쳐지는 내 모습을 추구하지 마세요.
사람들, 이웃에게 비쳐지는 내 모습을 추구하지 마요,
이웃을 마주 대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어떻게 비쳐질까를 추구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울에 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가르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울에 비쳐진 내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연예대상을 수여하면서 칭찬을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2000명의 직원이 나를 향하여 사장님, 사장님 하며 신처럼 받들어도 속지 마세요.
그들에게 비쳐져 있는 성공한 재계의 인물, 이것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인줄 알고 살다가는 반드시 왕비의 멸망의 길이나 나르시스의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도취되어도 물에 빠져 죽고,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혀도 자멸해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죽으신 저주받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비쳐지고 있는 내 모습을 찾고 사람들이 칭찬하든지 비난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세상의 모든 거울은 깨버리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 마땅한 자라는 내 모습을 찾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습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됨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느끼면서 마치 애인 속에 비쳐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의 모습으로 확인될 때 살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비쳐지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다는 모습으로 비쳐질 때 살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교리적 습관적으로 말하지 말고 진짜 애인에게 비쳐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의 기쁨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네가 마땅히 내 자녀이다'라고 비쳐질 때의 그 기쁨을 실제로 만끽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알고 세상의 모든 거울을 실제로 깨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눌리지 말고 세상의 거울은 깨버리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 거울 속에 비쳐진 하나님의 아들 된, 신의 자녀 된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살맛을 느끼며 그 살맛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주변에 언제나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거울들을 향하여, '거울아, 거울아, 내가 어떤 모습이냐?'고 묻는 것을 중단하고 모든 거울을 깨버리고 오직 하나님 거울만을 남겨두고 그것에 비친 내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